

# 조선왕실의 무덤 '능'의 변천 한자리에

**조** 선왕릉은 유교의 통치 이념 속에서 절대적 권위와 위엄을 지닌 존재였던 왕과 왕비가 사후에 묻히게 되는 곳으로 생전에 거처하던 궁궐과 마찬가지로 성역으로 간주됐다. 이러한 이유로 왕릉 위치의 선정부터 건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국가의 예법에 따라 신중하고 엄격하게 진행됐다.

조선왕릉은 500년 역사의 건축·조경·조각·제도·의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이며 유·무형의 요소가 어우러져 있다. 특히 조선왕릉의 대부분은 훼손 없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조선왕릉 40기(북한 소재 2기 제외)는 인류문화유산으로서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 조경단비각재실 도형

조경단과 재실 속 모습을 그린 지도로, 지도 내에는 단의 규격과 좌향 등을 기록했다.



### ▶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조선왕릉'

지난해 개최된 동일 제목 전시에 왕실의 분향 전주지역 내용 담아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기획전시실서 '풍수'·'조경단' 등 특별강연회도

국립전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조선왕실의 무덤인 능의 제도와 변천을 한자리에 살필 수 있는 특별전 <조선왕릉>을 21일부터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경북공 소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됐던 동일 제목의 전시에 '조경단·조경묘' 등 조선왕실의 분향인 전주지역 관련 내용을 담은 5부를 새로이 첨가했다. 또 전시관에는 유적지의 사진을 더해 왕릉전을 현장감 있게 보여주고자 했다.

1부 '조선왕릉, 세우다'에서는 국장에서 왕릉의 건설까지의 과정을 살핀다. 2부 '조선왕릉, 정하다'에서는 왕릉의 내·외부를 구성하는 요소 및 제도를 관련 문화재를 통해 소개한다. 3부 '조선왕릉, 모시다'에서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산릉제례와 왕의 행차인 능행 등 왕릉 관련 의례를 선보인다. 4부 '조선왕릉, 돌보다'에서는 조선왕릉을 지킨 사람들과 왕릉관리 기록이 수록된 왕릉지 등을 전시한다.

5부 '조선왕실, 시조를 기리다'에서는 비록 조선왕릉에 속하지는 않지만 태조 이성계의 시조인 이한 의 묘 조경단과 태조의 5대조인 양무장군의 무덤인 삼척 준경묘 등 왕실의 무덤으로 추봉된 능묘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조선은 왕실의 권위와 통치의 정당성을 굳건히 하기 위해 태조 이성계의 선조를 기리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조경묘는 그 첫 번째 사례로, 전주 이씨

의 시조인 이한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영조는 조선의 역사가 전주 이씨의 시조인 이한으로부터 '오랫동안 덕을 쌓고 인을 축적한 결과'이며 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조경묘라 했다. 이후 고종은 오랫동안 시조 이한의 묘역으로 전해 내려오던 전주 건지산에 단을 쌓고 비를 세워 대한조경단이라 명명했다.

조경단과 조경묘의 '조경'은 경사스러움이 시작된 곳이라는 의미로 새 왕조의 건립을 뜻한다.

조선왕릉전은 국립전주박물관 본관 기획전시실에서 4월 9일까지 열린다.

특별전 기간에는 두 번에 걸친 특별강연회 '조선왕릉과 풍수'(2월 23일), '조경단과 조경묘'(3월 2일)가 개최되고, 교사 초청 전시설명회(2월 24일)와 온 가족이 함께 참가할 수 있는 주말 전시실 활동 프로그램 '조선왕릉 돌보다'도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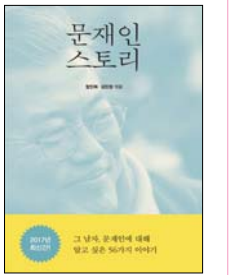
김승희 관장은 "전주가 많은 이들의 관심지로 부상한 것은 조선왕릉의 분향이라는 점이 그 부각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전시는 조선왕릉의 역사성과 예술성,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그의 인연이 전하는 '그 사람, 그의 인생'

### 신간도서·안도현 외 '문재인 스토리'

<문재인 스토리>는 '문재인'이라는 사람과 이룬 저런 인연을 맺었던 이들의 사연을 모은 책이다. 어릴 적 친구, 학교 동창, 군대 동기, 이웃에 살던 사람, 함께 일했던 동료, 사회에서 만난 지인 등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시인 안도현·함민복·김민정·박성우와 소설가 백가흠·이유·황현진·이재은 등이 함께 기획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원고를 매만졌다.

책은 '문재인의 기억'과 '문재인에 대한 기억'을 통해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과난민 시절의 가난을 함께 견뎌온 부모님, 수재화 같았던 고등학교 때의 몇몇 장편, 독재정권에 맞섰던 열기왕성한 대학생 문재인, 좌충우돌하며 건장한 대한민국 군인으로 거듭나던 특전사 시절,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로 맹활약하던 무렵, 청와대에 있으면서 겪어야 했던 사연 등.

'다양한 빛깔과 목소리를 지닌 추억담 속에는 공통으로 발견되는 대목들이 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문재인은 매일 감나무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다. 힘든 친구를 보면 들쳐 업기부터 하는 사람이다. 말을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입 대신 귀를 활짝 여는 사람이다. 도통 화내는 법이 없는 사람이다. 누군가를 이유 없이 함담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힘들다 싶을 때면 어디선가 불쑥불쑥 그를 돕는 누군가를 참 많이 가진 사람이다. 좋은 인연은 반드시 더 좋은 인연으로 돌아오는 법이란 걸 믿는 사람이다. 보퐁의 다정함으로 민만한 사람인가 싶다가도, 그 결이 한결같아 슬그머니 뒤편에 만드는 사람이다. 함께 길을 가다 서점이 보이면 슬그머니 끌고 들어가 책을 사주는 사람이다. 시골 장에서 마늘 두 점을 사서 슬쩍 한 점을 건네주기도 하는 사람이다. 무엇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를 지금도 지갑 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책은 작은 모자이크 조각 같은 56가지의 이야기가 모여 '문재인'이라는 커다란 그림을 완성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 전주국제영화제 '스페셜 포커스'... 영국영화 거장의 작품세계 엿본다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종직)는 관객들에게 세계의 거장 감독 및 국가를 소개하고 영화의 마스터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인 <스페셜 포커스> 프로그램에 마이클 윈터바텀 감독의 특별전을 마련한다.

마이클 윈터바텀(사진)은 현대 영국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이번 특별전 '마이클 윈터바텀: 경계를 가로지르는 영화작가'에서는 영화와 다큐멘터리, 음악과 텔레비전 영화를 넘나들며 40여 편이 넘는 장편영화를 만들어 온 그의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다.

특별전은 단순한 이야기꾼을 넘어 현실과 대결하는 시네아티스트이자 주제적인 15문학·음악·현실의 끈궁합을 다뤄온 야심찬 시네아티스트로서 윈터바텀의 주요작 15편들을 범주별로 소개한다.

### 주제적 15문학·음악 현실의 끈궁합 다룬 마이클 윈터바텀 감독 특별전

'나인 송즈' 오리지널 버전 포함  
'인 디스 월드'·'트립 시리즈' 등  
주요작 15편들 범주별로 소개



작품은 국내에 개봉된 바 있지만 검열에 의해 제대로 볼 수 없었던 '나인 송즈'의 오리지널 버전을 비롯해 '인 디스 월드' 이후 현실과 다큐멘터리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일련의 영화들과 다큐이자 음악영화가기도 한 '24시간 파티하는 사람'

들' 등의 작품 그리고 최근에 영국 BBC와 TV 영화로 소개되고 있는 '트립 투 잉글랜드' '트립 투 이탈리아' 등의 '트립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쥬드'를 비롯한 초기 극영화와 함께 '쇼크 독트린' '벌거벗은 임금님' 등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다큐멘터리 대표작도 상영 예정이다.

전주국제영화제 이상용 프로그래머는 "마이클 윈터바텀 특별전은 감독에 대한 단순한 조명이 아닌, 유럽의 현재에 대한 1900년대 이후의 시선을 조명하는 것"이라고 전시 의도를 설명했다.

특별전은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열리는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이클 윈터바텀 감독과는 영화제 기간에 마스터클래스 및 관객과의 대화로 만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따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7년 2월 21일>



#### ▷쥐띠

48년생: 배우자와 사소한 일로 다투거나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60년생: 문서운이 좋다.  
72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어려움이 따르는 운이다.  
84년생: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운.



#### ▷소띠

49년생: 동기간과의 불화로 어려움이 따르는 운.  
61년생: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해야 문제가 없다. 좋은 일하려는 마음에 나서지 마라. 원망 듣는다.  
73년생: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운이다.  
85년생: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진행하라.



#### ▷호랑이띠

50년생: 어려움이 따른다면 선배나 손윗사람을 찾아가라. 해답을 얻을 것이다.  
62년생: 이성으로 인해 힘든 일이 생긴다.  
74년생: 겉으로는 화려해보이나 실속이 없을 수 있는 운.  
86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구슬수와 시비가 따른다.



#### ▷토끼띠

51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마음 상할 일은 있으나 큰 해는 없다.  
63년생: 일적인 능력이 올라가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75년생: 횡재수가 들어오니 금전 거래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겠다.  
87년생: 식욕이 있으니 모임을 갖거나 식사약속을 하는 것도 좋다.



#### ▷용띠

52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실패수가 따른다.  
64년생: 사람들과의 화합에 좋은 운이다. 화합을 요하는 일을 하기에 좋은 날.  
76년생: 겉으로는 서로 웃으나 속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주의하라.  
88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운이다.



#### ▷뱀띠

53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운.  
65년생: 금전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운이니 적극 진행하라. 다만 무리는 금물.  
77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일이 성사된다.  
89년생: 동기간과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다.



#### ▷말띠

54년생: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던 것에 대한 해결이 가능한 운이니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66년생: 순간적인 감정에 휘말리지 마라.  
78년생: 허나를 잃으면 둘을 얻을 수 있는 운이니 긍정적으로 행동하라.  
90년생: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다.



#### ▷양띠

55년생: 금전을 빌려주거나 투자는 좋지 않다.  
67년생: 뜻밖의 귀인을 만나게 되니 어려움이 있으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79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된다.  
91년생: 운이 좋지 않으니 중요한 일은 다음으로 미뤄라.



#### ▷원숭이띠

56년생: 원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  
68년생: 평소에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할 일이 생기는 운이다. 순간의 감정으로 대처하지 마라.  
80년생: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질 때에 금전적으로 생각하라.  
9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정신적 소모는 많고 얻는 결과는 적다.



#### ▷닭띠

57년생: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어려운 운.  
69년생: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과의 불화가 예상되니 말을 조심하라.  
81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나서지 마라. 좋은 일하고 원망 듣는 격이다.  
93년생: 건강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운.



#### ▷개띠

46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시비가 따른다.  
58년생: 이성을 주의하지 않으면 구슬수에 휘말리게 되니 거리를 두어라.  
70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뒷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쉽게 해결될 것이다.  
82년생: 크게 움직이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



#### ▷돼지띠

47년생: 가정에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59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일이 성사되고 재능 발휘가 잘 되는 때니 활동하기에 좋은 운이다.  
71년생: 사소한 것에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때다.  
83년생: 어려움이 따른다면 이성의 도움을 받아라.